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이론차 사고예방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남규)는 최근 서구 운전사거리에서 광주 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론차 사고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함평 월야초 공명선거 캠페인

함평군 월야초등학교 최근 월야면 파출소 앞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와 함께 이번 캠페인에는 월야초등학교 선풍누리단 학생들이 참여했다.



목포대 4-H, 대학가 후문 골목길 정원 조성

목포대학교 4-H 회원들은 최근 청계면 도림길에 화초를 심으며 아름다운 골목길 정원을 조성했다. 목포대4-H 회원들은 식목일 기념하며 화훼종자를 파종하고 직접 기른 백일홍, 메리골드, 셀비어, 디알리아, 콜레우스 묘를 이용했다.



전남사회복지모금회, 여수시에 감사패 전달

전남사회복지모금회는 7일 오후 '희망2018나눔캠페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여수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대차 투자 결단...지역 발전 큰 보탬”

“현대자동차의 광주 투자 결단은 지역 발전을 뛰어 넘어 한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구제길(52) 바른계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장은 현대차가 최근 광주 빛그린 국가산단 내 완성차 공장 참여의향을 발표한 데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최근 현대차는 광주시와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합작법인에 대한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세부적인 투자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에 완성차 생산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1만 2,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차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다는 것이 구 회장의 생각이다.

구 회장은 “광주·전남지역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불행과 고통의 씨앗은 청년실업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현대차의 결단을 시작으로 국내 여러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고용환경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현대차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자치단체와 지역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결책
적극적 투자 위해 각계각층 노력 절실

■ 구제길 바른계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장

회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성향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여러분야의 긍정적인 활동이 뒷받침돼야 성공모델을 키워낼 수 있다”며 “한국 제조업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부 지원 또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 회장은 바른계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른계살기운동협의회는 안전문화 정착과 다문화가정 지원·재난현장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단체다.

구 회장은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1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지역에서 바른계살기운동협의회 목표는 지역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질서 태만 ▲도덕적·의식적 문제 등 후진적 요소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일이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질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펴고 있다. 매년 추석이나 연말이 되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쌀(백미)을 전달하고 ▲아동 필독서 등을 위해 후원금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 기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동구 산수동 푸른길공원 굴다리 인근 정자에 ‘간식함’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간식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현대차와 차질 없는 협상과 조속한 시일 내에 실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힘 없는 약자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며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밝은 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LG화학 나주공장 나주천 정화활동

LG화학 나주공장 사회봉사단은 최근 나주천 일대에서 친환경 휴공(EM휴공) 단지기 및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LG화학 임직원 50여명 및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 나주시, 전남 과학고 학생 및 교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LG화학 임직원들은 ‘나주천을 맑게 해줄 친환경 휴공 단지기’를 마무리한 후 나주천 곳곳에 널린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 사용된 500여개의 친환경

휴공은 EM(Effective Micro-organisms : 효모균, 유산균, 황합성 세균 등 수십 종의 미생물이 들어있는 미생물 효소)과 향토를 반죽해 발효시킨 친환경물 질이다. 오염된 하천에 투척하면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나주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 나주공장장 이근주 상무는 “LG화학 나주공장은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박정환 광주조달청장, 벤처기업 현장 방문

박정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7일 광주광역시 첨단산업단지 소재 벤처나라 등 록업체인 (주)드림씨엔지(대표 송창규)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했다.

(주)드림씨엔지는 지능형 실외청소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보행형 지능로봇 청소장치 등 다수의 특허와 KC안전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청소 용역회사가 주요 고객으로, 노면청소기 제품 2종은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재되어 있고, 2018년에는 친환경 청소로봇과 자율주행청소로봇을 새로 출시하는 등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박정환 청장은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벤처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D-5

이승욱, 정청래 단장과 유세활동

이승욱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는 지난 6일 강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중앙당 유세단장인 정청래 전국회의원과 유세를 펼쳤다.

정청래 단장은 이날 직무용 차림으로 유세차량에 올라 “남북이 하나 돼 평화를 이루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의미를 담아 유세단 명칭이 ‘평화철도 111’이다”며 “평화철도로 유럽의 관광객이 중국대륙을 거쳐 신의주·평양·서울·해남·강진까지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욱 민주당 군수후보를



인 ‘까지내재 터널개설’ 공사 등 이승욱 후보의 굵직한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강조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박우량 “농민 월급제 시범 도입”

박우량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월급제 시범 실시’와 ‘규모의 벼농사’ 등 벼농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벼농사를 재배하는 경우, 소모되는 각종 농기계 구입비를 대폭 지원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단위로 각종 농기계를 집중 관리하도록 해 현행 5·6년의 사용연한을 1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보관창고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이자의 일정부분은 군에서 지원, 원금은 벼농사 판매 시 일괄 상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주열 기자

장일, 박지원 의원 등 5일장 집중유세

장일 민주당평화당 진도군수 후보는 7일 진도읍 5일장에서 박지원 의원, 천정배 전 대표, 윤영일 의원과 함께 유세회를 펼쳤다.

박지원은 이날 유세에서 “진도에서 태어난 것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어렵다. 민주당이 전국을 싸워서 하고 있다. 오직 진도, 해남, 목포, 강진, 고흥 등 5개 지역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적폐공천을 하고도 서남권마저 싸워서 하기



위해 해남, 진도, 목포에 지도부를 투입하는 등 용단폭격을 하고 있다”며 “박지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일을 군수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 장일후보가 군수가 되면 윤영일 의원과 박지원이 힘을 합쳐 진도발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고길호 “복지 체감도 높이는 사업 지원”

고길호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민의 낮은 복지 체감도를 끌어 올리고 민·관 협력·자원 공유 중요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GO 함께GO 나누GO’ 혁신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고길호 후보는 “‘찾아가GO 함께GO 나누GO’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과 저소득층 희망나눔 지원, 읍면 협업체 지역특화사업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보장



협업체 이동빨래방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민선7기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김철우 “중앙인맥 활용, 보성 발전 견인”

김철우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는 7일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전 원내대표, 삼성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 신정훈 문제인대통령비서실 농업업비서관, 서갑원 전 의원, 개그맨 엄용수씨 지원으로 유세전을 펼쳤다.

이날 보성을 찾는 지원단은 “문제인 호남 최측근 김철우가 보성 발전의 적임자”라며 군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과 함께 유세차에 오른 김철우



후보는 “그동안 쌓아온 힘 있는 중앙인맥들과 보성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며 희망 보성의 비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당대표도 8일 보성을 찾아 김철우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보성=선상희 기자

송재향 “노인복지관 건립, 무료급식 해결”

송재향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원(라선거구) 후보가 7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약,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밝혔다.

송 후보는 “지역을 돌아봤을 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라며 “아직도 독거노인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쉬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후보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무료급식



도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 2006년 선거를 통해 당선돼 여수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성성심병원부설 성심장례식장 부사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